담양 죽녹원 관광객 150만명 돌파

전국서 몰려 세계 대나무박람회 성공 청신호

조직위 부위원장에 백산무역 대표 조동섭 씨

2015년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담양군은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 누적 관광객이 지난해 8월 누적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29일 150만 번째 관광객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군은 150만번째 입장객의 영예는 연말을 맞아 부산에서 장모·자녀 2명과 함께 고향인 화순 인근으로 1박2일 전남여행을 온 부부(부산 사하구 당리동)에게 돌아갔다.

군은 부부에게 '2014 전국12대 고품질 브랜드쌀' 1위에 선정된 대숲맑은 담양 쌀 1포(20㎏)와 죽녹원 한옥체험장 1일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첨자 부부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들른 죽녹원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돼 남은 여행길이 더 즐거울 것 같다"며 "올해 열리는 세계대나무 박람회 기간에도 가족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 관광객 증대는 지난해 주말 상설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터넷 티켓 예매시스템 구축, 매표구 증설, 무인발매기 설치 등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최형식)는 최근 담양군청 접견실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위원장 직에 사업가인 조동섭〈사진 오른쪽〉 씨를 위촉했다.

대덕면 장산리 출신인 도 부위원장은 (주)백산 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겸 북경 한중백산무역유한공사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중국 북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제대회로 개최되는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부위원장은 "담양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나주 호혜원 불법축사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보상금 노렸다는 의혹도

나주시가 최근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인접한 나주 호혜원내 불법 축사 17동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나주시는 본보 보도〈광주일보 2014년 12월 3일 13면〉직후 현장 점검을 거쳐 17동의 불법축사를 최종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나주경찰은 "연초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혜원 축사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의무에 따른 나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축사로, 신고의무를 어기고 축조해 사용 중이거나 이주를 알면서도 건축물을 지은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어 '보상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돼지 등 가축 10만여마리를 사육하는 호혜원은 폐수방류와 악취발생으로 인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호혜원의 이주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독거노인돕기 구슬땀 함평군 공무원들이 최근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함평군은 각 부서별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27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함평군 제공〉

영광군 원전세 인상으로 147억 추가 재원 확보

올 446억 과세

영광군이 원전세 인상에 따라 147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147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원전세의 세율인상은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 공무원들의 세수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원전세 인상을 반대했으나 원전소재 5개 시·군 행정협의회(회장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율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TF팀을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 원전에 의한 주민의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여 세율인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써 영광의 경우 2014년 기준 연간 223억원 과세되던 원전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446억원 과세되며 세액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영광군에서 65%를, 전남도에서 35%를 배분받게 돼 영광군은 평년대비 147억원이 증가한 292억원이 될 전망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전북 소식

군산 월명공원 입구 일대 확 바뀌었다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완료

보행로 등 시민중심 탈바꿈

군산시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군산시는 "2013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최근 마무리돼 새단장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콘크리트 옹벽의 노후화된 벽화 부분을 나무와 석재를 활용해 보다 온화하고 은은함이 묻어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주차장 한편에 보행로를 신설해 그동안 주차장을 가로질러 다니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에 데크와 벤치를 설치하고 어린이 쉼터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이 야외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골목마다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올 전북도민체전 상징물 확정

정읍시 포스터 등 공모

오는 5월에 정읍에서 개최되는 '2015년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상징물이 확정됐다.

정읍시는 최근 대회를 대표하는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포스터와 엠블럼, 슬로건 등 3개 부문 응모작 총 270점(포스터 9, 엠블럼 9, 슬로건 252점)의 작품 가운데 총 6점(당선작 3, 가작 3점)을 최종 선정했다. 포스터는 이용기씨, 엠블럼은 유정현씨, 슬로건은 조옥진씨 작품이 각각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포스터 당선작은 단풍의 고장 정읍에서 아름다운 화합의 축제라는 주제로 단풍을 배경으로 역동적인 붓 터치로 체육인을 표현했으며, 엠블럼은 개최도시 정읍을 상징하는 '우물 정(井)'의 한자로 화합을 성화처럼 형상화했다. 또 슬로건은 '맛·멋·흥의 정읍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을 선정했다.

2015 전북체전 포스터 공모 선정작.

시는 선정된 작품의 보완작업 등을 거쳐 가로기와 홍보탑, 홍보책자 등 다양한 홍보 매뉴얼을 개발해 도민체전 상징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다문화가정에 가정교사 무료 지원

초등생 대상 두 과목

순창군은 새해부터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정교사를 보내 무료로 1대 1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교사는 1주일에 한 번씩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국어와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가운데 학생에게 필요한 두 과목을 골라 가르친다.

순창군은 효과가 있으면 취학 전의 어린이와 중학생 등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이와 함께 결혼 이주여성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강사와 어린이집의 원어민 강사 등으로 채용해 취업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찰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팬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이전만해감
- 누문동 상업지역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원주택, 별장부지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45㎡(498) 2백평이나 3백평선 분할 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급매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15억 전세 9억 월 500 회사 사옥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급매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건축물 대장 있음 950㎡(288)대출 9천 매도5백
- 급매 무안군 망운면 자연녹지 22238㎡(667) 대지 555㎡(168)대출 8천 매도 5백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압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 도로 좋음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자연 녹지와 주거지역 임
- 화정역 5분 거리 대지 645㎡(195)별장용 단독주택등 적합 3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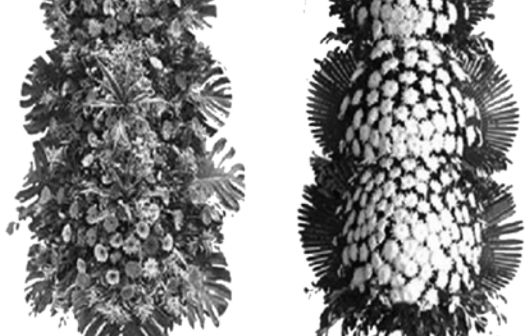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지 및 전 2,148㎡ 건물 99㎡ 도로 및 환경양호 보림사 인근 매 2억3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접,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답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감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

NAVER 검색창에 단비플라워 를 쳐보세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